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⑫ 출가 결심한 싯달타 태자



▶ 한줄요약
사대문 밖 마지막 북문에 나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관찰한 싯달타 태자는 시름에 잠긴다. 그러던 중 만난 비구 스님에게서 사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듣고 출가하기로 결심한다.

사문 만난 싯달타, 출가를 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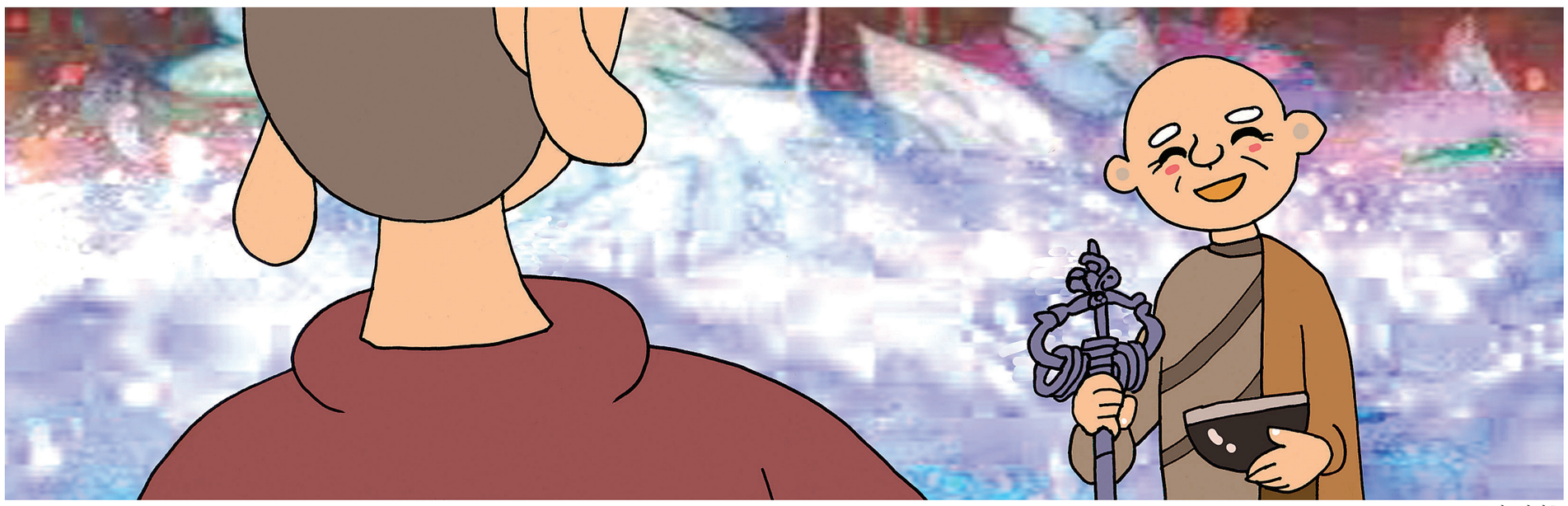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싯달타 태자는 드디어 사대문 밖 중 마지막 북문에 나가 '노병사(老病死)'를 관찰하고 시름에 겨웠던 원인의 결과를 해결할 열쇠를 찾는다. 그것은 곧 출가한 비구 스님 사문을 만나는 일이다. 이제 북쪽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거천이 비구 스님 차림으로 멋지게 걸어가서 태자가 한눈에 반하게 할 차례이다.

그동안 절을 기웃거리며 절밥을 먹은지 서른 해 남짓에 많은 스님들의 출가동기를 듣기도 하고 〈삼국유사〉 등에서 고승대덕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었다.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았다. 특히 〈삼국유사〉 효선 편의 스토리텔링은 모두 편부편모 슬하에서 자란 효심 깊은 이들이 효와 불교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 신미의 제자 학조 스님의 출가는 어린 학조를 보고 지나가던 스님이 출가시켜야 한다며 발바닥에 '왕(王)' 자가 새겨진 것으로 아버지를 설득한다. 조선에서 왕이 둘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장수하며 스승 신미를 이어 훈민정음 불경을 간행하고 세조부터 중종 대까지 큰 활약을 하여 결국 '승왕'이라 불렸다.

싯달타에게 출가란 무엇일까. 어쩌면 태자를 사이에 두고 생로병사를 연기한 정거천과 출가를 막는 아버지 정반왕의 한 판 겨루기가 아닌가. 여기에서 정거천의 승리를 관전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북문 밖서 사문을 만나다

또 북문 밖에 나가셔서 말을 부려 놓고 즘게 나무 밑에 쉬시며 모시고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혼자 깊은 도리를 생각하고 있으시니 정거천이 사문이 되어 석장을 짚고 바릿대를 받치고 앞으로 지나갔다

사문(沙門)은 부지런히 행적을 닦는다는 말이니 중을 사문이라고 한다. 장(杖)은 막대기이니 막대기에 고리가 있어 짚고 다닐 때 석석(錫錫)한 소리가 나므로 석장이라 한다.

이제 태자는 성문 밖에 나가 커다란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사유(端坐思惟)하는 일이 일과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봤자 시종들이 따라붙고 말을 타고 시정을 굽어 살피는 시찰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말이다.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말에서 내려 앉아 깊은 도리를 생각하는 명상에 잠겼을 때 우리의 정거천께서 스님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신다.

여기서 사문의 모습이란 부지런히 행적(行蹟)을 닦는 사람이고 '중'이라 부른다. 행적은 도를 닦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중'이라는 단어가 '스님'을 낮잡아 부르는 호칭이 되었지만 15세기 당시에는 우리가 호칭하는 '스님' 이상의 뜻이었다. 〈석보상절〉 6권에는 승가의 의미로 '중님네'란 단어도 나온다. 또한 '부처'라고 쓰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쩌면 '님'이 덧붙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의 의미가 우러나는 본래의 우리말이 점점 격하된 예가 아닐까. '아줌마'가 '여사님'이 되고 '김 씨'가 '김 사장님'이 되어가는 선례로 말이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혹독한 불교 박해로 인한 의미의 인플레이션인듯하다.

이 사문의 거동 보소. 석장을 짚고 바릿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갈 뿐이다. 그 지팡이에서 고리가 달려 석석한 소리가 난다. 훤칠한 대장부의 모습으로 걷는 것만으로 좌중을 압도한다. 석장은 윗부분을 주석으로 만든 지팡이인데 탑 모양인 윗부분에는 큰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작은 고리를 여러 개 달아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짤랑거리는 지팡이 소리 정도가 되겠는데 '석석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든다. 사전에는 까끌거리는 '깔깔하다'와 '차갑다'는 방언으로 남아 있다. 바릿대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발우를 말한다. 그런데 그 발우를 받쳐든다고 한다. 인도 조각을 살펴보면 큰 발우를 두 수행자가 어깨에 받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받다'는 꽤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한 손에 지팡이 짚고 한 손에 발우를 어떤 모습으로 잡아야 공경하는 의미가 담긴 '받다'를 표현할 수 있는지 문득 궁금하다. 통도사의 봉발탑에서 발우를 얼마나 공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산치대탑처럼 발우를 엎어놓은 형상으로 복발탑이라고 부른다. 발우를 '받다'라는 표현에서 공경하여 봉양하는 '이받다'도 연상된다. '석가보'에는 사문이 의복을 단정히 하고 손에는 법기(法器)를 들었다고 하는데 석보상절에서는 사문의 씩씩하고 장엄한 모습을 지팡이와 발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마지막 북문서 '老病死' 관찰
시름에 잠겨있던중 사문만나
"부처님 되는 수행자" 답변에
싯달타태자 "좋을시고" 감격

태자가 물으셨다. "그대 어떤 사람인가."
대답하되 "부처의 제자 사문이라 합니다."
태자가 물으셨다. "어찌 사문이라 하는가."
대답하되 "삼계가 어지럽고 육취가 어지럽거늘 마음을 알아서 근원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름을 사문이라 합니다" 하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삼계 안에 목숨을 타고 난 것이 사람이 되었다가 중생이 되었다가 하면서 끝없이 육취에 두루 다니므로 어지럽다 하는 것이니 육취는 여섯 길로 가는 것이니 위에 말한 다섯 길에 아수라를 더해 여섯이다. 부처는 삼계 밖을 벗어나시어 항상 편안하시거늘 중생은 벗어날 일을 하지 않아 육취에 떠돌되 수고로운 줄을 모르므로 어지럽다고 한다.

태자가 그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묻는다. 사문이란 삼계(三界) 육취(六趣)가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본질을 마음으로 꿰뚫어보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삼계와 육취가 무엇인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불교의 우주를 말한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육취라는 천, 인,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육도를 사람이 되었다가 축생이 되었다가 윤회하는 일을 모두 잡아 이르는 말이다. 오직 부처만이 삼계를 벗어나 항상 편안한데 그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이가 사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생은 사람과 대비될 때는 '짐승'의 의미로 쓰이고 부처와 대비될 때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곧 사람을 포함한 동물 등 육도를 윤회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사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요즘 말로 시크하다. 그랬더니 태자의 반응도 놀랍다.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좋을시고. 이것이야말로 마음에 훤해지고 즐겁도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가장 기뻐하셨다.

네 문 밖에 나가신 것이 부처의 나이 열아홉이시니 주소왕 44년 임신(B.C. 953년)이다

'좋을시고' 드디어 답을 찾았을 때 절로 나오는 이 한마디. 아마도 어깨춤이 절로 나지 않았을까. 요즘 2030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다 어렵다고 매사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딸이 하나 있어 옆에서 보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정말 한 백번쯤 취직시험에 떨어지고는 자존감이 지하 100m로 추락했다고 말해 아주 작은 뭐라도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와 응원하는 마음뿐이었다. 얼마 전 드디어 꿈같이 취직이 되었다며 좋아하면서도 한편 스스로도 믿지 못한다. 얼마나 떨어졌으면 합격이 비현실적인 일로 실감조차 두려워하나.

태자의 노병사(老病死) 통찰이 이에 비유가 되겠는가만 사문을 만나고 돌아와 기뻐하는 모습이 합격소식을 들은 딸과 내 모습에 오버랩돼 하는 말이다. 오래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태자의 사문유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 사문을 만나고 돌아와 환희작약하면 얼마나 좋을까. 〈월인천강지곡〉 사십사장은 이 사문유관을 이렇게 짧게 명쾌하게 노래하고 있다.

사십사장〈월인16ㄴ〉
동남문 노니시매 늙은 사람 병든 사람을 보시고 출가의 마음을 내시니
서북문 노니시매 죽은 사람 비구승을 보시고 더욱 마음이 바빠지시니

태자가 늙음을 보고 세간의 슬픔이 깊어지고 병든 이의 괴로움을 보고 시름에 잠기더니 죽은 사람을 보고는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결심한다. 그러다 사문을 만나 그 길이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장면이다. 자 이제 실천하는 일, 출가가 기다리고 있다.

태자 출가를 결심하다

태자가 밤에 왕궁에 들어가시니 광명이 두루 비쳤는데 왕께 사뢰었다. "출가하고자 합니다."

왕이 손목을 잡고 울며 말씀하셨다.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라. 나라를 이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태자가 말씀하셨다. "네 가지 소원을 이루고자 하오니, 늙음을 모르고 병이 없으며 죽음을 모르고 여의는 것을 모르고자 합니다."

왕이 더욱 슬퍼하며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 소원은 예로부터 이룬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튿날 석가종족 중에 용맹한 사람들 오백명을 모아 문을 굳게 잠그라고 하셨다. 용(勇)은 힘이 세며 날랜 것이요 맹(猛)은 매운 것이다.

정말 눈물없이 볼 수 없는 아버지 정반왕의 간곡한 만류가 심금을 울린다. 태자는 여기서 생로병사 중 생(生) 대신에 이별을 꼽는다(一者不老°二者無病°三者不死°四者不別). 어느 부모인들 자식의 앞길을 막고 싶겠는가. 그러나 가겠다는 길이 어느 인간도 이루지 못한 노병사와 이별이 없는 길이라니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잠그는 수밖에. 누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사서 고생을 하며 살다가 자신이 부모가 되고나서야 그 심정을 헤아리고 눈물을 쏟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석보상절〉의 이 장면이 그래서 나도 슬프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